이베로아메리카 제11권 2호 [2009. 12] : 233~268

아르헨티나 한인 동포의 再移住에 관한 연구

박 채 순*
(Park, Chae-Soon)

<Abstract>

A Study on Koreans "Re-Migrants" of Argentina

This essay studies some aspects and problems of re-migration to third countries of Koreans of Argentina. First Korean migrators arrived in Argentina in 1965 and most of them settled down and have been living since then with great satisfaction.

Nevertheless, Korean migrators faced challenges such as a different language, culture shock and new social status, but specially severe economic problems that had prevailed in Latine-American countries. These practical difficulties can be found in the literature works published by Koreans in Argentina and Korea. In this context, some Koreans re-migrate to the Unites States, Canada, Mexico and Brasil or even return to Korea due to various reasons.

We can divide those re-migrants into different types. Some re-migrate for better circumstances to comparably stable countries. Others go to other countries from third countries. Some go back to Korea to settle down forever. In this last case, the others come back to Argentina from the third countries.

* 본 논문은 2007년도 고려대학교 교내특별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됨.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
E-mail: parkcoa@naver.com

These overseas Koreans, of course it is for sure that they have positives aspects for they can be a global talent for learning various languages and accustomed to multiple cultures. But they have negatives aspects such as communication problems and conflicts among generations, geographic and problems of economic situations within re-migrate families and identity problems on the process of migration and re-migration. But most of overseas Koreans suffer confusion of identities in the process of ambiguity of nationality.

Some schemes same as voting rights for overseas Korean and dual nationalities are needed to solve the problems same as identity problems and to expand national development and maintain ethnics communal society of re-migration Koreans.

[Key Words: Koreans in Argentina/ Re-Migration/ Koreans Ethnic Identity/ Global Talent/ Ethnics Communal Society]

[주제어: 아르헨티나동포/재이주/한인정체성/글로벌 인재/민족공동체]

Ⅰ. 들어가는 말

한민족의 뿌리로 둔 한인들[1]이 1905년의 을사늑약 체결, 1910년의 국권의 상실, 1945년 독립 후의 동족상쟁, 남과 북의 분단, 이데올로기의 갈등과 빈곤 등의 고난 속에서 생존하기 위한 방편으로 고국을 등졌다.

1)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한인과 한인동포라는 용어는 그들의 법적 지위와 거주하는 지역에 상관없이 한국인의 혈통을 이어받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모든 지위의 사람들을 말하며 혼용해서 사용한다.

또한 한국 사회가 경제적인 발전을 이룬 최근에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세계 각지로 이주하여 한인 동포 사회를 이루었다.

아르헨티나에 한인 이주는 1965년 농업이민으로 시작하였고, 1984년에 한국과 아르헨티나 양국 정부 사이에 체결된 투자이민 협정으로 본격적으로 중산층 이민이 개시되었다. 1990년 후반 아르헨티나 경제가 안정을 이룬 시기에는 4만여 한인 동포가 한인 공동체를 이루었다[2].

재아르헨티나 동포사회가 현지에 정착한 이래로, 일부 동포들이 미국 등 제 3국으로 재이주하거나 한국으로 영주 귀국하는 예가 발견된다. 재이주한 사람들 중 일부가 다시 아르헨티나로 돌아오는 경우를 목격하게 된다. 특히 1980년대 후반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지로 재이주 하거나 한국으로 영주 귀국하는 경우가 빈번했고, 2000년 초 아르헨티나에 채무불이행이 선포된 전·후에 이러한 재이주 현상이 두드러졌다.

본 논문은 몇 가지 가설을 설정한다. 첫째, 아르헨티나 거주 한인동포가 현지에서 적응하는 과정에 이민자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둘째, 그러한 이유로 재아 동포사회에서 재이주가 이뤄진다. 셋째, 재이주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정체성과 문화의 혼돈 등 많은 문제가 존재한다. 넷째,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한민족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과제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면 그들이 글로벌 인재가 되어 국가와 한민족 발전에 유익할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많은 가설 중 다음과 같은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즉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첫째, 아르헨티나 한인 동포(Koreans in

---

2) 아르헨티나의 한인 이민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박채순(2006), '한민족 네트워크와 재아르헨티나 동포」,재외한인연구,16호, pp.145-192 와 서성철(2005), "라틴아메리카와 한국이민: 아르헨티나 한인사회와 현지적응", in『세계화와 라틴아메리카의 이주와 이민』, 오름, pp.205-238를 참조.

Argentina) 사회에서 제 3의 국가로 재이주하는 원인과 그 유형, 둘째, 재이주에 수반하는 문화갈등, 정체성 혼란 등 재이주에 따른 당면한 문제, 셋째, 이 당면한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해서 동포에 관련한 국내의 문헌과 아르헨티나에서 발간된 자료 등을 참조하였고, 재이주 동기와 재이주에 따른 제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재이주 유형별 동포들을 면담조사방법(interview method)으로 조사하였고, 아르헨티나 문인들의 작품집 '로스안데스문학' 등[3]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비록 문학작품에 비친 내용이지만 작품속 내용은 작가의 자전적이거나 간접 체험적인 실제 상황의 이민지의 생활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 아르헨티나 현지 동포 전문가와 의견을 듣고 연구자가 참여하여 관찰하고 인지한 내용을 보충하여 논문을 작성하였다.

이제까지 재외한인 연구는 이주, 적응, 민족 관련 연구, 언어, 문화, 정체성 등에 대해서 이뤄졌고, 학문 분야도 인류학, 사회학, 역사학, 정치학, 경제학 등 다학문적(multidisciplinary) 연구라는 것이다.(윤인진, 2006, 9-10).

일반적으로 사회과학 조사연구 방법에서 사용되는 문헌연구, 심층적인 개별 또는 집단면접, 설문조사, 대화 분석, 그래프 분석 등을 통한 방법으로 진행하는 바 본 논문에서는 문헌 연구와 심층적인 개별 면접에 의한 방법을 주로 이용하였다.

아르헨티나 동포의 이주와 현지 적응에 관한 내용을(서성철, 2005, 박채순 2006) 제외한 재이주에 대한 선행연구가 충분치 않아 이 연구를 위해 해당 유형별 동포들의 직접 또는 전화 면담에 의존한 바가 크다는 것을 밝힌다.

---

3) 재아문인 최운의 수필집 "까라보보의 참 나무", 맹하린 소설집 "세탁부", 아르헨티나 한인 문학인들이 쓴 작품, 한인과 현지인이 공동으로 출판한 작품 '함박꽃'등.

아르헨티나 동포에 대한 면접은 표에서 분류되는 각 유형의 동포를 2008년 9-10월 아르헨티나 현지에서 직접 면담하였고 일부는 2008년 말-2009년 9월 사이에 한국에서 직접 면담하거나 전화나 메일을 통하여 보완 하였다.

Ⅱ. 아르헨티나 한인의 이주

1. 아르헨티나 동포사회 형성과 현실

아르헨티나가 속한 아메리카에는 바이칼호에 살았던 몽골족의 일부가 기원전 1만 5,000년경에 베링 해협을 따라서 알류샨열도를 이용하여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동하였다는 설이 정설로 되어있다(이강혁 2008, 19-20). 미주 지역에는 인디언이 거주했던 곳에 유럽인이 이주해와 형성된 국가가 대부분이다(김은중 2005, 294). 수백만의 유럽인 등 특히 이태리와 스페인 사람들이 20세기를 맞아 부에노스아이레스를 찾았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아르헨티나는 이민국가라 특징지어진다. 더구나 최근의 경제, 정치, 사회의 불안정으로 입·출국과 통과가 빈번한 이민국가로서의 특징이 두드러진다(Jachimowicz, Maia 2006).

라틴아메리카는 여러 인종이 이주와 이민을 거듭해서 이뤄진 혼혈의 이주와 이민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조돈문 et al. 2005, 14). 그런 점에서는 아르헨티나 한인동포도 아르헨티나 전체 이주 역사의 일부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아르헨티나 이민자 협회에서는 재아르헨티나 한인동포와 볼리비아 동포를 아르헨티나에 기여하는 민족 집단으로 평가 한다[4]. 또한 아르헨티

4) 아르헨티나 이민자 협회(Asociacion de Colectividades Residentes en la Argentina)

나 상원에서 2002년 한국 아르헨티나외교관계 40주년을 축하하고 동참하는 특별선언을 발표 하였다[5]. 이 특별선언은 미국과 스페인 출신 이민자들에 이어 세 번째로써, 아르헨티나 정부에서 한인 동포들의 위상을 인정하는 결과이다. 사회학자 메라 교수는 "아르헨티나의 한국이민자들은 아르헨티나인들에게 다른 가치들과 기준을 허락하여 함께 살아가도록 더 민주적이고 다원적인 사회로 가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있다"(Mera 2005, 402)고 말한다.

아르헨티나의 한인 동포는 한국 사회에서의 빈곤을 극복하고자 농사를 짓기 위해서 떠났던 동포들의 초창기 이민은 Diaspora적인 성격인 강하고 1985년을 분기점으로 해서 이후는 좀 더 나은 환경을 위하여 본인의 자의에 의해서 이뤄진 이민으로 볼 수 있겠다. 아르헨티나 이민문화연구원 장영철은 한·아 양국정부의 협약에 의하여 1985년 이후 이민 정착금을 준비하고 시작했던 이민을 초국가적(transnational)이민으로 규정지었다(장영철2005,201).

어떤 이민자라도 대부분 동포들은 중요한 두 가지의 과제를 안고 살아가는데, 하나는 현지 사회에 적응하여 성공적으로 주류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인으로 연결성을 가진 한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일이다(임채환/전형권2006,48-60). 아르헨티나에 초기에 도착했던 한인동포도 대부분 이민자들이 현지에서 부딪치는 언어, 문화의 충격 이외에 불법체류, 영주권 등의 신분상의 문제, 동포 상호간의 경쟁과 갈등 등을 감내해야 했으며, 특히 중남미 국가에 만연되었던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해야 했다. 아르헨티나에 한인 동포가 정착

Ernesto Mariano 회장, 아르헨티나 이민자 연맹(Federacion Argentina de Colectividades) 부회장 Manuel Rojas의 증언.

5) Proyecto de Declaracion (Resoluciones de Senado: 25-Sep-02-Aprobo-Senado de La Nacion de Argentina-numero 1808/02)

한 이래 현지의 정치, 경제, 사회 상황은 심한 변화가 있었다. 1976-1983년의 혹독한 군사 권위주의 시기는 물론 민주화를 이룬 1983년 이후에도 정치, 경제, 사회의 불안정이 주기적으로 반복하였다.

아르헨티나의 동포들은 현지의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 더 나은 환경을 동경하는 환경 속에 놓이게 된다. 그런데 현재 중요하게 인식되는 영어 사용국인 캐나다, 미국이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서양문화를 이미 맛본 문화적인 특수성 때문에 중국, 일본, 구 러시아 등 여타 지역 동포들보다 더 쉽고 빨리 이민정착지를 바꿀 수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현상으로 현지인들은 한인들을 아르헨티나를 북미로 이주하기위한 중간 정착지라고 비난하기도 한다.

2. 문학작품 속에 비친 한인 사회의 모습

아르헨티나의 한인 사회가 현지에 적응하면서 다른 국가로 재이주를 결정하게 된 경제·사회적인 어려움은 현지에서 생활하는 동포들은 매일 마주하는 일상 과제다. 한국의 매스컴에도 소개되곤 하나 그들의 삶을 엿보기 위해서 스스로 표현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겠다. 아르헨티나 한인사회 문인 20여명이 1994년 1월 6일에 '재아한인 문인협회'를 결성하고 회원들의 작품집 '로스 안데스'를 발간한다. '로스안데스'는 2007년 말로 통권 11호를 출판하였다. 뿐만 아니라 소설가 박형영, 맹하린, 수필가 최운씨 등 30영명의 재아 한인 문학인들이 한국의 문단에 등단하였고, 그들 중 다수가 한국에서 작품집을 출간하였다. 그들은 이민사회의 여러 현실을 문학작품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 동포사회의 문학 작품과 한국에서 출판된 재아르헨티나 출신 동포 문학인들의 작품을 통해서 한인 사회의 모습을 살펴본다.

> 수돗물을 틀면 하수구로 빠져나가는 물의 흐름이, 이 나라는 시계 방향으로 휘돌면서 흐르는데 한국은 그 반대라고, --중략--, 한국과 아르헨티나의 반대 현상에 대해서, 숫자를 셀 때, 한국은 손을 쫙 편 채 엄지부터 세지만, 아르헨티나는 주먹을 쥔 뒤 새끼손가락부터. 행주나 걸레를 쥐어짤 때는, 한국은 두 손의 안으로 짜내지만 이곳은 두 손의 밖으로. 코를 닦을 때 한국은 콧등에서 아래로 닦아내지만, 이곳은 아래에서 위로, 결혼식과 모든 잔치는 밤에. <맹하린, 세탁부 p.81>

이민자들은 한국과 아르헨티나에서는 자연의 현상은 물론 생활방식, 습관 등 문화의 다름으로 인한 충격을 겪게 된다.

> 처음 이민 오던 해에 동조를 유치원에 넣었을 때의 그 공포에 가까운 두려움은 참……, 동조는 교실 한켠에 벌서는 아이처럼 오도카니 서서 다른 애들의 노는 모습을 슬프도록 구경만 하고 있었다. --중략--, 유진은 당장에 짐을 싸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남편을 들볶았다. 들들들……<맹하린, 세탁부 p.27>

낯선 언어를 습득하고 문화에 적응하기 위한 어려움은 이민 세대들이 현지에서 넘어야 할 첫 번째 과업이다. 새로운 언어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민자에서 안겨주는 장벽이다.

> 어쩌면 죽을 때 가지 짊어지고 가야 할 죄책감, 아이들에게 한국말을 못 가르친 죄책감 때문에 내가 즈네들 글로 써진 책에 관심을 갖듯, 우리아이들도 엄마가 써 놓은 걸 읽기 위해서라도 한글 공부를 열심히 하겠지, 하는 기대와 희망으로 이 글을 쓰고 있다. 유언처럼 말이다. <김연현, 내 아들에게 엄마가>[6]

6) 로스안데스문학(2002) 통권 6호 p. 90

이민생활의 고단한 일상은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한글과 한국문화를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간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큰 도시에서는 2세 교육이 좀 더 용이하나, 필자가 거주하는 지방(마르델 쁠라따)에서는 더욱 어려운 현실이다.

> 자식을 앞세우지 않으면 이민청도, 연방경찰서도, 자동차면허시험장도 갈 수 없는 남자, 학부모 자격으로 학교에라도 가는 날이면 꾸어다 놓은 보릿자루가 되어 우두망찰하다 돌아 와야 하는 남자. <최운, '아버지 그들은 누구인가')[7]'

낯선 문화와 언어의 장애로 이민지에서 고통을 겪는 것은 成人인 부모세대들이 더욱 심각하다. 젊은이들은 좀 더 빨리 이 과정을 통과하지만 성인 이민자들은 언어가 멍에로 남아있다.

> 1980년대 초에 닥쳤던, 대대적인 평가절하의 '달러 파동'은 평생 잊으려야 잊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 시절에는 한 달에 몇 백 달러 가지고도 생활비를 해결할 수 있었는데 피땀 흘려서, 그야말로 땅을 일구는 심정으로 일해 왔다고 해야 할 편물업에서 손을 떼고 모든 기계를 팔아서 구메구메 저축해둔 금액까지 합하니까 10만 달러였다. 괜찮은 조건의 주택을 구입할 수 있었는데 은행에 맡겼더니 이자가 엄청났다. 그런 식으로 가다가는 머잖아 1만 달러가 더 불어나겠다는 희망에 부풀어 흐뭇했는데, 하루아침에 평가 절하가 단행되어 몇 달 동안 늘어난 이자 8천5백 불을 합쳐 10만 8천 5백 달러가, 급히 은행에서 찾아왔을 때는 1만 8백 50십 달러라는 말도 안 되는 숫자로 변해 있었다. 그나마도 그 후에 은행 봉쇄령이 내려졌다.<맹하린, 세탁부 pp.105-106>

아르헨티나에서 셀 수없이 실시되었던 평가 절하로 현지 화폐는 한낱

---

7) 로스안데스문학(1989) 통권 3호, p.235

휴지 조각으로 변한 경우가 많고, '꼬랄리또(coalition)'[8]라는 은행 봉쇄조치 등은 개인의 예금을 마음대로 인출하지 못하게 된다. 이 시기에 앞날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겪는다.

> 드디어 1989년도에 암흑 같은 날들이 닥쳐왔다. 인플레로 물가는 계속 뛰어오르고 매달 가격이 오르던 게 매주가 되고 곧 이어 매일 매일 오르더니 드디어 하루에도 몇 번씩 인상하기에 이르자 점점 상점들은 크레디트카드를 받지 않았다. 그것은 두말 할 것 없이 손해 보는 짓이니까. 그러나 김씨는 동방예의로 침착하고 친절하게 손님을 대하며 몇 년 동안 하던 방식 그대로 계속 카드를 받았다. 그러면서 김씨는 겉으로는 태연한 척 했지만 그의 마음속으로는 폭풍처럼 들끓었다. --중략--, 드디어 그 유명한 살인적 초인플레가 5,000%까지 도달했다. 여느 때처럼 상점에 도착한 김씨에게 딸 마리가 낮은 목소리로 "아빠... 제발... 모든 크레디트카드를(진열장에 붙인)떼 버리세요... 우리는 망해요" 말했다. <호르헤 에두아르도, 함박꽃 p.118>[9]

살인적인 초인플레 시절에 한국인의 사고와 상식만을 주장하여 많은 경우에 빈 털털이가 되곤 하는 한인동포들의 생활 현장을 현지인이 관찰한 내용을 쓴 내용이다.

> 세월이 어느새 한 세대를 넘어섰다. 그 결과 우리들은 초지를 잃었다. 가지에 앉은 새 처럼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다가 제3국을 찾아 보따리 싸는 모습을 어제도 보였고 오늘도 보이고 있는 것은 그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이다. --중략--, 90년대가 시작되면서 한국

8) 소를 갇아두기 위한 마구간을 뜻하는 단어로 돈을 은행에 가둬두는 조치를 일컬음.

9) 2001년 아르헨티나 정부와 한인교민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문화 행사의 결과로 한인에 대한 문학작품을 공모하여 '함박꽃'을 출판하였다. 그중에서 "...아빠! ...제발 모든 카드를 떼어 버리세요...우리는 망해요..."

> 인은 거의 주기적으로 위법 자와 비문화인의 대명사처럼 매스컴에 오르내린다. 불경기는 오늘도 우리를 한숨짓게 만드는 주범으로 버티고 있다.<최운, 우리는 라마르께에 간다>[10]

눈 뜨고 나면 이민 짐을 싸거나 야밤에 사라져 버린 동포들을 보는 고달픈 이민생활과정이지만 후세들에게 한인의 역사를 남기기 위해서 최초정착지인 '라마르께'농장에 이민 35주년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현지로 떠나면서 수필가[11]가 쓴 내용이다.

Ⅲ. 아르헨티나 한인의 재이주

여기서 본 논문에서 논의되는 몇 가지 용어에 대한 의미를 정의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이주(Migration)라고하면 일반적으로 이민을 표현하며, 개인이나 종족, 민족 따위의 집단이 본래 살던 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정착하는 것을 의미하여, 재이주(Re-migration)[12]는 한곳에 이주하여 계속해서 머무르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또 다시 이주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영주 귀국(Return to motherland)은 본국을 기준으로해서 밖으로 이주한 사

---

10) 최운 수필집(까라보보의 참나무)p.90

11) 최운 선생은 한때 한국으로 귀국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아르헨티나에서 안주하면서 열심히 작품을 활동을 하면서 문학인을 길러 내기위하여 문학 강의를 하고 있다.

12) 재이주에 대한 외국 논문은 주로 이민 나간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경우에 많이 사용한다. 참고: Christian Dustmann, Oliver Kirchkamp(2001), "The Optimal Migration Duration and Activity Choice after Re-migration", Bonn, Iza와 Gmelch (1980): "Return Migration",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20, Bonn, Iza pp.127-144.등.

람이 재이주를 한국으로 선택하여 고국으로 돌아오는 경우이다. 한인정체성(Koreans ethnic Identity)은 한국인과 한민족에 뿌리를 둔 한인이 갖는 생각과 신념이 같은 정체성을 의미하고, 민족공동체(Ethnics communal society)는 거주하는 지역에 관계없이 한민족을 하나로 보는 가상의 공동체로 보는 의미이며, 글로벌 인재(Global Talent)는 세계화 시대에 보편적인 문화와 다 언어를 습득하여 글로벌한 세계에서 통용되는 인재를 의미한다.

1. 재이주 동기

이민생활의 어려움을 '큰 나무를 파서 다른 곳으로 이식하는 것'과 같은 경우라고 흔히 표현한다. 이식된 나무가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여 고사(枯死)하거나 성장이 늦는 경우가 많은데, 이민 생활의 정착이 그렇다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아르헨티나 동포사회가 현지에 정착한 이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부딪치고 과 북미 지역의 흡인력에 의해서 제 3국으로 재이주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제3국으로 재이주하는 동기를 동포들의 면담에서 증언한 내용과 본인이 인지하고 관찰한 내용을 종합하고 아르헨티나 교민 역사 전문가 장영철과 박형영 등과의 의견을 교환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분류한다.[13]

1) 아르헨티나의 높은 인플레이션[14], 실업률, 저 생산, 디폴트 선언[15] 등 정치, 경제적 이유.

---

13) 아르헨티나 이민역사에 정통한 장영철 이민문화연구원과 문인협회 전 회장 박형영을 2008년 9월 말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인터뷰하여 작성함..
14) 아르헨티나에서 1989년에는 4,923.6%의 인플레이션을 기록하였다.
15) 로디르게스 사아 대통령이 2001년 12월에 디폴트(국가채무 불이행)를 선언한다.

2)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자녀의 교육을 위하여.
3)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멕시코, 칠레, 그리고 인접국 브라질을 택하거나, 영어권 국가에서 재도전을 위한 경우.
4) 아르헨티나의 불안한 치안 상태의 이유[16].
5) 이민지에 대한 고향의식 부족. 즉 현지에 뼈를 묻겠다는 등 주인의식 부족.
6) 계돈 문제, 금전차용, 이성간의 문제 등 개인적인 문제.

즉 아르헨티나 한인의 재이주 동기는 현지의 정치 불안, 경제 침체 등 불안정[17]한 사회 상황과 아르헨티나에 비해서 미국, 캐나다, 한국의 상대적인 발전, 영어권인 미국위주의 시대 전개 등에 따라서 좀 더 나은 지역과 자녀들의 교육, 개인 사정 등 여러 가지다.

2. 아르헨티나 동포의 재이주 유형과 시기

1) 재이주 유형

아르헨티나 동포수는 각각 1995년 32,387명, 1997년 32,069명, 2003년 15,500명, 2005년에는 19,197명(박채순 2006, 165)으로 시기에 따라서 꾸준하게 변동이 있으며, 현재는 약 35,000명에 이른다(장영철, 2009년 9월 증언)[18].

아르헨티나 동포들이 한국에서 아르헨티나에 이주한 다음 그들의 결정에 의해서 몇 가지 유형으로 분화되어 이민생활을 영위하는데 그의

16) 알폰신과 메넴 그리고 델라루아 대통령 시절, 전국에서 약탈과 강도 사건이 빈번하였다.
17) 아르헨티나 경제는 주기적으로 마이너스 성장과 높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융 위기가 반복되어서 정치. 경제적인 불안정을 겪는다.
18) 아르헨티나 한인 이민문화연구원 전문위원으로 아르헨티나 한인 이민사를 공동집필하였고 계속해서 동포의 역사에 대한 관심과 기록을 하고 있다.

유형을 대별해서 아래 <표 1>과 같이 분류한다.

첫째, 아르헨티나에 계속해서 정착하는 경우인데 이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둘째,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으로 재이주하는 경우이며, 이 경우가 이 논문의 중요한 관심 대상이다. 셋째, 한국으로 영주 귀국하는 경우이며, 이 경우는 차후에 다른 논문으로 연구코자한다. 마지막으로 제3국에서 다시 아르헨티나로 돌아오는 경우와 여러 가지 혼합한 경우로 대별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 재이주의 복합 형태라고 볼 수가 있다.

유형에서 살펴보면 동포가 2세대로 접어들면서 1세대에 비해 재이주의 형태가 더욱 다양해진다. 많은 수의 동포 2세들은 아르헨티나에서 수학하고, 전문인으로써 활동 하거나[19]부모의 가업을 잇는 경우가 상당수에 이른다. 그러나 또 다른 많은 수가 초. 중등하교를 아르헨티나에서 마치고,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유학생 자격으로 미국 등지에 재이주하여 학문을 계속하거나, 아르헨티나에서 익힌 의복 제조 등의 자영업에 종사하면서 제2,3의 이민생활을 영위한다.

재이주한 그들 중의 일부는 다언어와 다문화를 습득하여 국가와 민족을 초월한 글로벌 인재가 되어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획득하여 생활하고, 일부는 현지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국제인으로 살아가기도 한다. 또한 아르헨티나 출신의 일부 1.5-2세들은(국적에 관계없이 아르헨티나에서 성장한 경우) 한국에 귀국하여 학업을 하고 한국의 기업에서 근무하거나 본인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있다. 영주 귀국하

19) 아르헨티나에서 대학까지 학업을 마친다는 것은 이민 부모들과 1.5세대에게 다아주 어려운 과제다. 그들은 학업을 하면서 언어와 문화가 서투른 1세대 부모들을 도와서 가업을 도와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당수의 1.5-2세들이 교육을 받아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의 자격을 취득하여 전문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한인전문인 협회). 그들이 만든 아르헨티나 안내서가 "재아한인전문인협회.『아름다운 미지의 세계 아르헨티나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재아한인전문인협회, 2007"이다.

여 생활하는 사람들은 영주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35세 미만 젊은 사람들은 병역의무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아래 <표 1>에서 동포의 재이주 유형과 정체성 등을 살펴본다.[20]

<표1>, 아르헨티나 한인 동포의 이주 유형과 정체성 등

유형	출발국가	이민(첫 도착 국)	재이주(2차 이주국)	제 3차 국가	사용언어	국가 정체성	민족 정체성	이민 세대
Ⅰ	한국	아르헨티나			한국어 스페인어	한국인	한인	1-1.5
Ⅱ	한국	아르헨티나	기타국가 (미국, 멕시코 등)	멕시코, 미국, 캐나다	한국어 스페인어 영어	한국인 중남미인 미국인 등	한인 또는 타 민족인	1-1.5 2 2-3
Ⅲ	한국	아르헨티나	한국		한국어 스페인어	한국인 아르헨티나 인	한인 또는 아르헨 티나인	1-1.5 2
Ⅳ	한국	아르헨티나	기타(미국, 멕시코, 캐나다 등)	아르헨 티나	한국어 스페인어 영어	한국인 중남미인 미국인 등	한인 또는 타 민족인	1-1.5 2 2-3

참고: 1.이민 세대란의 2세의 경우는 한국이 아닌 이민지에서 출생한 경우임
2. Ⅳ의 경우에 여러 가지 혼합형을 포함한다.

20) 이 자료는 필자가 2008년 9월 말과 10월 초 사이에 아르헨티나를 방문 했을 때와 그들이 한국을 방문 했을 때 인터뷰를 한 내용이며, 일부는 동포사회에서는 보편적으로 인지된 내용으로 구성했다. 미진한 부분은 전화나 전자 메일을 통해서 실시했다. 동포 각 개인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 위해서 현지 이름이나 가명을 사용한다.

2) 재이주 시기와 목적지

아르헨티나동포의 재이주시기를 살펴보면 첫째, 초창기 이민자들이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브라질, 볼리비아 등지에 도착하여 곧 바로 제 3국을 선택한 경우이다. 이들은 현지의 상황이 이민을 하기 전에 기대했던 것과 달리 실망스러운 현실을 대하고 주로 미국과 인접국 브라질 등지로 떠난 경우이다.

둘째, 많은 한인 이민자들이 1988-1990년, 라울 알폰신 집권 후반기와 메넴집권 초창기 초인플레이션과 극심한 경제적 불안정시기에 아르헨티나를 떠난 경우이다. 이때에는 멕시코를 경유하여 캐나다와 미국으로 떠났는데, 비자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담치기'[21]라는 불법적인 수단으로 간행하기도 했다. 셋째, 1999-2003년 델라루아 대통령 시대와 이어진 디폴트 선언을 전·후한 극심하게 불안정한 시기에 아르헨티나를 뒤로하고 재이민지로 향했다.

특히 세 번째인 2001년 외채 디폴트(외채지불정지:Moratorium)를 선언한 전·후 아르헨티나 사회가 극도의 혼란 상태에서 많은 동포들이 미국, 캐나다와 멕시코 등으로 재이주를 감행하였다. 또한 학생들을 주축으로 한 젊은 동포들이 한국에 귀국하여 수학을 하거나 직업 전선에 뛰어들었고, 노후를 고국에서 보내고자하는 장년들도 한국행을 결정하였다.

3. 아르헨티나 동포들의 유형별 증언과 관찰 내용[22]

재아 동포들의 재이주에 관한 조사를 위해서 위의 표에서 분류한 유형의 동포들을 면담하여 얻은 증언과 관찰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21) 멕시코에서 미국과 맥시코의 국경을 불법으로 통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22) 면담에 앞서 필자는 어느 정도 이들에 대한 사전 상황을 이해하고 있어서 각 유형에 적합한 동포들을 자유 구술 형식으로 면담하였다.

1) 제 I 유형: 아르헨티나를 제2 조국으로 삼는 경우

-- 세상에서 아르헨티나 보다 더 좋은 나라가 없어요, 아르헨티나가 천국입니다. --

◆ 전 페르난도(남 63세, 아르헨티나 거주, 이민 24년, 스웨터생산업: 아르헨티나에서 사업에 성공하고, 두 자녀가 부모의 가업을 이음. 2008년 말 서울서 인터뷰).

문: 많은 친구들이 미국 등지로 떠나는 데 선생님은 아르헨티나에서 계속 거주 하실 겁니까?

"다른 나라에 갈 생각이 전혀 없어요. 아 좋은 친구 있겠다, 매일 골프 칠 수 있으며, 하고 싶은 일 다 하지 않아요? 내가 아들한테 사업체 물려주어 잘 하고 있고, 이제 조그마하게 우리 센료라(부인)와 생활 할 일 만들어서 하는 데 왜 다른 나라에 갑니까? 사실 미국이나 한국 가봐야 각박하고 시간 없고. 솔직히 또 다시 이민 가서 시작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내 나이에 어디 가서 이만큼 여유롭게 살 수 있어요? 내 생각에 아르헨티나가 천국입니다".

◆ 양 이안 (남 58세, 아르헨티나 지방 거주, 이민 39년, 의류소매업: 1969년 20대에 부모님의 영농이민 케이스를 따라서 이민 온 경우: 처음 방문한 서울서 2009년 4월에 인터뷰)

문: 아르헨티나의 오랜 이민생활을 결산해 주세요.

"저희는 아르헨티나 수도에서 약 1,20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여태 생활합니다. 다행하게도 저희 애들은 모두가 한국말,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이탈리어 등을 구사합니다. 비록 부에노스아이레스와 멀리 있어도 셋 다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이 확고합니다. 다들 한국인들과 결혼 한데요. 저희 부부는 이민생활에 성공을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이 유형이 재아르헨티나동포의 주류를 이룬다.

많은 한인동포들이 아르헨티나에 이주하여 정착하고, 아르헨티나의 사회 문화 속에서 나름대로 만족하고 영주하는 경우이다.

2) 제Ⅱ유형: 아르헨티나에서 제3국으로 재이주하는 경우와 혼합형

-- 이왕에 이민 나왔으니 좀 더 나은 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① 미국으로 이주한 예

◆ 장 페르난도(남 57세, 이민 27년, 미국 거주 주류업: 아르헨티나에 정착 한 후-미국에 아들과 딸 각각1명 등 온 가족이 재이주하여 거주. 2009년 4월 한국서 인터뷰).

문: 미국으로 재이주한 동기와 현황은 어떻습니까?

"아르헨티나가 경제적으로 불안할 무렵이던 90년 중반에, 우리 부부의 장래와 애들에게 좀 더 나은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생각에서 미국엘 갔습니다. 처음에 다 잃고 밑바닥부터 시작했습니다. 얘들 엄마가 더 고생을 많이 했어요. 다행이 한국 간호사 자격과 경력을 활용해서 미국서 간호사로 생활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집도 장만하였고, 아들이 한국에서 대학을 다녀 이중 살림입니다."

문: 자녀들의 교육문제와 정체성에 혼란은 없었습니까?

"아주 문제가 많았습니다. 한국에서 아르헨티나에 4살과 2살짜리를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초등학교만 졸업시켜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아들 녀석은 한국에 와서 대학을 다니는데, 한국에서 아르헨티나로, 거기서 다시 미국으로, 이제 다시 공부를 위해서 한국으로 오는 과정에 가는 곳 마다 말과 문화 차이 때문에 고생이 참 많았습니다. 얘들이 한국인도, 아르헨티나 사람도, 미국사람도 아닌, 뭐랄까, 정체성에 혼란을 겪어서 함께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아들 녀

석은 한글 공부와 문화 적응에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문: 아르헨티나에 계시는 것과 비교하시면?

“우리는 아르헨티나에서도 그런대로 살았지요. 그곳의 경험이 미국생활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미국에는 잘 간 것 같습니다. 남미는 늘 불안하잖아요?”

◆ 유 까를로스(남 59세, 아르헨티나 15년, 미국 거주 7년, 임대업: 2008년 9월 한국에서 인터뷰)

문: 미국으로 이주한 주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이왕한번 이민 나갔으니, 세계에서 가장 선진국인 미국에서 애들 공부시키기 위해서죠.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치안 등이 불안했지요. 다행이 애들이 미국서 명문대에 입학해 안전하게 공부 잘하고 있습니다. 아주 만족합니다. 교육에 있어서 미국이 세계 최고에요. 미국이! 남미 이민자의 최종 종착역이잖습니까?”

문: 자녀들은 어떤 국가 정체성과 민족 정체성을 가졌습니까?

“나는 미국 영주권, 그리고 와이프와 애들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는 아르헨티나 시민권도 가져서 그들은 한국인으로 생각하지만, 반 정도는 미국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결혼을 시키지 않았는데 결혼 문제가 좀 걱정입니다. 나는 우리 한국 사위를 맞고 싶거든요. 그러나 이 문제는 지들이 결정하겠지요.”

② 멕시코로 이주한 예

◆ 이 장원(남 63세, 아르헨티나 이주 18년, 멕시코 거주 8년, 식당업: 서울서 멕시코에 전화 인터뷰)

문: 언제 멕시코로 이주 했으며 그곳 생활은 어떻습니까?

“아르헨티나가 2000년에 앞이 보이질 않을 무렵 짐을 싸서 여기에 왔

습니다.

멕시코도 다른 나라처럼 정착이 쉽지는 않지만, 이민지 모두가 그렇듯이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무렵 여러 사람이 저희들과 같이 멕시코로 탈출하다시피 들어 왔는데, 더러는 미국으로 또 다시 담을 넘었고, 많이 들 아르헨티나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③ 혼합형의 예

◆ 소피아 류(여 65세, 아르헨티나-미국-멕시코 경유 한국거주, 이민 25년: 오랫동안 관찰, 인터뷰)

소피아 류는 27년 전에 남편과 함께 10살 딸(이사벨)과 7살 아들(안토니오)을 데리고 아르헨티나에 이민 갔다. 남편이 이주한지 2년 후에 한국에 귀국하여 사망하고 그녀는 두 자녀와 함께 아르헨티나에 남는다. 소피아는 1990 중반에 아들 안토니오는 아르헨티나에 두고 딸 이사벨과 함께 미국으로 재이주 한다. 미국에서 멕시코를 왕복하면서 비즈니스를 하였고, 딸 이사벨이 한국에서 아르헨티나를 거쳐 미국에 이주한 한국 청년과 결혼한다.

딸과 사위 사이에 미국 시민권자인 알렉과 가브리엘의 두 손자를 둔다. 네 식구는 미국에서 2000년에 아들이 사는 아르헨티나로 다시 돌아온다.

약 2년 후에 사위는 과테말라에 이주하여 취업하고 2007년 소피아는 딸과 외손자 둘을 데리고 한국으로 귀국한다.

현재 사위는 과테말라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으며, 딸은 한국에서 일한다. 아르헨티나에 남아있던 아들은 아르헨티나 현지 여자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는다.

사용 언어: 가족은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를 각각 구사한다.

거주 지역: 한국, 미국, 아르헨티나, 멕시코, 과테말라에서 거주한 경

험이 있다.

민족 정체성: 아들과 며느리를 제외한 모두가 한국인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국적: 미국에서 출생한 두 손자는 미국시민권, 아르헨티나 아들 가족은 3명이 아르헨티나 시민권, 한국의 소피아, 이사벨은 아르헨티나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국적 유지, 사위는 과테말라에서 비즈니스 비자를 가지고 있으나 한국국적이다.

문: 가족의 이산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딸과 손자들은 매일 과테말라의 사위와 연락을 해야 하지요. 이번에 아르헨티나에 사는 아들이 손자를 보았는데, 그곳까지 다녀와야 했습니다. 식구가 한곳에서 살아야 하는데 힘이 너무 많이 듭니다."

문: 그럼 가족이 합칠 수는 없나요?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방법이 없네요. 아들은 아르헨티나에 두고, 사위는 경제적으로 과테말라가 더 나으니 그곳에 있고, 딸은 애들 교육 때문에 한국에 있지요. 사위가 성공하면 한국에 와서 살아야지요. 그러나 아직은 이릅니다."

◆ 박 마리오(남65세, 브라질 5년, 아르헨티나 25년 거주, 의류 도매업: 2008년 10월 초 아르헨티나에서 인터뷰)

30년 전 한국에서 아르헨티나에 출장 갔다가 눌러 앉은 후, 브라질로 이주한 다음, 아르헨티나에 재입국하여 거주한다. 딸 셋을 아르헨티나에서 초등학교를 졸업시키고 중등학교 이상은 미국에서 교육과 취업을 시켰다.

문: 식구들의 국적은 어디입니까?

"저의 부부와 큰 애는 브라질 국적이며, 둘째와 셋째 딸은 아르헨티

나 국적입니다. 그러나 저의 집 사람과 세 딸은 각각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으나, 자주 왕래해야 하는 것 때문에 나는 미국 영주권을 취소했습니다. 제 집 사람은 가끔 미국에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애들 교육비 때문에 미국영주권자가 부담이 덜 되거든요."

문: 사용하는 언어는 무엇입니까?

"온 가족이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 영어와 한국어를 합니다. 식구가 만나면 주로 스페인어로 대화 합니다. 단 나는 한국어로 소설을 쓰고 있기에[23]한국어가 가장 자연스럽지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영어를 좀 더 배워야 하는 숙제가 생깁니다."

문: 한국 민족의 정체성은 어떤가요?

"내가 애들을 한국인으로 남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셋 다 현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아르헨티나인에서 차츰 미국인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젊은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한인으로 남기가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녀석들이 나의 의견을 존중해서 한국인이 되길 희망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 문제점이 있다면? 장래에 가장 사시고 싶은 곳은?

"세상이 참 복잡하지요. 난 순수한 한국 사람인데, 딸만 셋이니, 사위 문제,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문제, 앞으로 태어날 순자문제.. 나의 희망은 애들이 전부 미국에서 정착 한 다음에는 아내와 들이서 한국에 돌아와서 노후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

23) 그는 이민생활 중에 한국의 소설에 공모하여 한국문단에 등단 한 작가이며, 이민자들에 관한 소설을 계속해서 쓰고 있다. 한국에서 소설집을 내는 것이 꿈이다.

위의 두 가족은 한국에서 출발하여 아르헨티나를 거쳐 제3국으로 재이주 하여 많은 지역과, 다 언어, 여러 나라 국민 정체성, 다민족 정체성 등을 갖는 예를 여주는 좋은 예이다. 류 소피아와 박 마리오의 경우 불과 30년 동안에 이러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주했다고 가늠할 수가 있다.

◆ 박 페르난도(남58세, 30년 동안 아르헨티나와 미국에서 거주, 무역업: 2008년 10월 아르헨티나와 2009년 3월 한국에서 인터뷰)

문: 가족의 주 거주지는 어느 나라입니까?

"우리는 전 지구가 거주지입니다. 현재는 저는 한국에 있지만요. 1년에 꼭 1/3정도씩 세 나라에 골고루 생활합니다. 아르헨티나에 제일 많은 기반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한 10년 전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집 사람과 둘째는 미국에서 생활하지요. 큰 아들은 한국에서 작은 아들은 미국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 자녀들의 국적과 한인 정체성에 문제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고등학교까지 아르헨티나에서 마치고 대학을 미국에서 다녔습니다. 한국에서는 한국 문화와 한국어를 배웠고요. 식구가 다 아르헨티나와 미국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는 그래도 한국 사람인데, 얘들은 아마 미국과 아르헨티나 생활과 말이 더 자유스러울 겁니다. 그들은 각각 그곳에서 생활하고 공부를 해서 두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섭렵했습니다. 우리 애들은 소위 말하는 글로벌 인제(Global 人材)라고 보면 되겠지요.. 다행이 큰 애가 외국에서 성장한 한국 아이와 교제를 해서 한국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며늘아기는 네덜란드, 아랍과 호주에서 성장하고 교육 받았으며, 아랍계의 회사에 다닙니다. 아들 부부는 여러 나라 말을 합니다. 다행이 다들

한국을 좋아하고 만족하고 있어서 흐뭇합니다."

문: 그렇게 3국에 관여해서 좋은 점도 있나요?

"애들을 국제적인 매너를 가진 글로벌 인재로 성장 시킨 것이 만족스럽습니다.

세계화 시대에 다문화를 익히고 여러 말을 구사하며 국제적인 매너를 가진 것이 그들의 인생을 살면서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좋은 보수로 좋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것도 그런 것 아닙니까?"

이들 유형은 미국, 캐나다 등의 북미와 멕시코와 브라질, 과테말라 등 중남미 지역으로 재이주 하는 경우이다. 물론 호주나 영국 심지어 중국에 까지 이주하는 경우도 더러 있으며, 이러한 지역이 혼합하여 가족이 각각 다른 지역으로 재이주한 예가 많다.

이 유형이 본 논문에서 테마로 잡은 경우이다. 다국적, 민족 정체성, 다문화가 혼합된 재이주의 결정판이다.

3) 제Ⅲ유형: 한국으로 영주 귀국(Return to motherland)[24]하는 예

-- 뭐니 뭐니 해도 내 조국이 좋아요.--

◆ 이 청라(남 71세, 한국 거주, 아르헨티나 이민 25년, 임대업: 2008년 12월 한국에서 인터뷰).

문: 한국에 귀국한 이유와 한국 생활이 어떠한지?

"말 잘 통하고 습관, 음식이 다 입에 맞아서 내 조국 생활에 만족합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오래 살았지만, 말도 서툴렀고, 문화가 한국과

24) 이러한 예는 한국의 동포는 물론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의 국민이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다. 러시아에 이주해서 고국 에스토니아로 돌아가는 예는 다음 논문 참조. Anu, Korb(2008), "Remigration and tellling about it: Stores of Estonians from Russia", Estonia, Folklore 39. pp.39-62.

달라서 늘 남의 나라에 와 있다는 생각을 했지요. 뭐니 뭐니 해도 내 조국이 좋아요! 딸 하나가 대학부터 대학원을 한국서 다니니, 우리 부부가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문제가 전혀 없어요. 돈 좀 가져와서 임대료로 생활하는데 만족합니다. 늙으면 고향 찾는 것이 순리 아니에요?"

◆ 유 카롤리나(여 58세, 이민 18년, 한국거주 5년, 남편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 무역 했다. 현재는 3녀를 포함 5인 가족이 모두 한국에서 거주한다. 자영업: 2008년 11월 한국서 인터뷰)

문: 왜 한국으로 귀국 하였는가, 정착에 어려움은 없었나요?

"딸들이 대학교에 갈 무렵 한국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깨닫고 한국에 오기를 원해서 귀국했어요. 두 딸은 한국인 사위 맞았고, 막내는 서울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딸들이 한글 배우기가 어려웠고, 반 한국 사람 반 아르헨티나 사람으로 처음에는 힘이 들었으나 어느 정도 안정이 된 상태입니다. 지난 이야기지만, 2살 때 아르헨티나에 데려갔던 막내가 한국에 와서 한국의 학교생활에 적응하느라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한국이 너무 많이 변해서 참 고생을 했습니다.. 우리는 시골에서 갓 올라 온 사람 같고요. 이제 차츰 나아집니다."

아래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국으로 이민 간 동포들이 최근에 해마다 3,000여명이 국내로 돌아오고 아르헨티나 동포도 매년 100명 내외 동포가 영주 귀국길을 택한다.

<표2> 중요 국가별 재외동포 영주귀국 현황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일본	443	485	518	474
호주・뉴질랜드	163	138	157	210

아르헨티나	110	101	99	89
파라과이	86	133	100	95
캐나다	377	609	573	819
미국	1,319	1,403	1,565	1,608
기타	302	369	431	468
합계	2,800	3,238	3,443	3,763

출처: 외교통상부 자료 '연도별 국가별 영주귀국 현황'을 바탕으로 정리함.

4) 제Ⅳ유형: 재이주 후에 다시 아르헨티나에 오는 경우

-- 결론은, 아르헨티나가 그나마 제일 좋습니다 --

◆ 김 길군(남 60세, 아르헨티나 거주, 이민 22년, 의류 도매업: 2008년 9월 말 아르헨티나에서 면담):

문: 가족 사항을 좀 말씀해 주세요.

"회사는 아직도 아르헨티나에 있습니다. 한 10년 전에 전 가족이 미국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거기 두 딸과 아들을 두고 우리만 다시 돌아왔습니다. 애들 셋 다 고등학교 까지 아르헨티나에 보냈고, 대학교는 미국에서 시켰지요. 다 미국에서 취업했으나, 우리는 미국 영주권 가지고 아르헨티나에서 하던 옷 도매상 계속합니다. 그래도 가끔씩 미국에 가야합니다. 한국 국적과 미국, 아르헨티나 두 나라 영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 왜 자녀들이 있는 미국으로 안 가시나요?

"내가 미국에서 할일도 없고 복잡해서 못 삽니다. 더 늙으면 한국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은데 한국도 워낙 많이 변해서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이 경우에는 확실하게 목적으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으나, 인터뷰에는 빠졌지만 제 3국으로 이주하였으나, 아르헨티나의 생활과 편이함으

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Ⅳ. 재이주 한인동포의 문제

1. 세대 간의 소통의 문제와 갈등

이민 사회에서 세대 간에 언어와 문화의 단절과 이로 인한 불편함은 이민자들이 겪는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1세대들은 새로운 언어와 문화의 습득이 매우 더딘 반면에, 2세대들은 현지에서 적응이 상대적으로 매우 빠르다. 부모 세대들은 고국의 언어와 문화를 유지하고자 하는 반면에 2세대는 수민국의 새로운 언어와 문화를 습득하여 세대 간의 소통의 단절 현상이 생긴다. 이민 1세대들은 새로운 언어를 습득하지 못하여 그들의 지혜와 생활의 기준 등의 전통적 역할을 상실한다. 이 경우에 젊은이들이 대화나 현지의 문화를 알기 때문에 가정에서 그들의 역할이 더 중요하게 된다(Mera 2006, 397).

또한 아르헨티나의 이민 2세대들은 세계화 시대에 보편화된 '맥도널드 세계화 현상'에 의해서 새로운 문화를 받아드려, 결국에 가서는 한국인도 아르헨티나인도 아닌 맥도날드 세계화 된(Bialogorski, Mirta 2006, 135)[25]정체성을 가진 세대로 탄생된다.

여기에 한인부모 세대들은, 자녀들에게 교육과 직업의 선택, 배우자의 선택 등 한인 정체성에서 요구되는 전통문화 가치 보존을 요구하는 권위적인 가정환경 속에서, 본인 스스로가 결정하고 책임지는 자유스러운 현지 문화와의 차이에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Bialogorski 2006,

25) Bialogorski, Mirta는 한인2세들을 "Ni "Coreanos" ni "Argentinos", "Mc Mundializados" 로 표현함.

135-136).

이런 세대 간의 갈등은 재이주 해 가는 과정에서 소통의 문제와 문화 차이에 의한 갈등이 깊어 져서 더욱 혼돈스러울 수가 있는 것이다. 이는 장 페르난도, 김길군 등의 가족에서 엿볼 수가 있었다. 이주해 가는 지역의 언어나 문화가 다양해지면 해 질수록 적응과 습득이 더욱 어렵고 혼란스럽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응이 느린 부모세대와 좀 더 빠른 자녀 세대들의 세대 간의 소통 문제로 상호간에 갈등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것이다.

2. 재이주 가족 간 지리적, 경제적 환경 문제

교통과 통신이 어느 시대보다도 더 발달한 현재에도 재이주 동포들의 가족 간의 상봉은 공간적인 거리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 박마리오, 김길군, 박페르난도, 소피아 류의 경우가 그런 예이다. 공간과 시간의 제약과 경비의 문제 때문에 가족 간의 유대와 가족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제한 받는 것이다. 물론 한국에서도 주말 부부, 기러기 아빠 등 생활의 방편에 의해서 별거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지만 재이주 가정은 가족 간에 지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각각 다른 국가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이러한 가족 간의 관계는 가족 해체에 까지 이르는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다. 미국에 재이주하여 생활하는 많은 동포들이 아르헨티나나 한국에서 부모의 상을 당하거나 친지들의 결혼식 등 중요한 가족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서류에 자유롭지 못한 경우[26]의 동포는 일

26)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하여 불법 체류 상태인 경우인데, 아르헨티나에 환난이 닥쳤을 때 일부는 멕시코 등을 통하여 밀입국하거나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체류한 경우가 있다.

단 한번 미국에서 국외로 나가면 다시 재입국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 미국의 현행법이다. 미국에 부부 중 한 쪽만이 이주하여 거주하는 경우에 가족의 해체 까지 이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아르헨티나 동포의 경우 일반적으로 가족이 함께 이주하고 재이주하여 이러한 상황이 흔하지 않은 편이나, 타민족 집단 등에서는 이민에 의해서 가족이 해체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27].

3. 재이주 동포의 한인 정체성과 국적 문제

사전적 정의의 정체성(正體性)은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또는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 존재라고 표현한다[28]. 민족정체성은 공유된 민족적 특성들로 인해 어느 한 개인이 어느 특정 민족 집단에 대해 느끼는 소속감(a sense of belonging)이라고 볼 수 있다(박찬용/유표근 2008, 466-467).

즉 한인 정체성은 한인에 소속감을 갖고 한인과 함께 서로 편안함을 느끼고 소속인들의 생각과 신념을 자신의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겠다. 한인 정체성은 한국 국민으로서의 국민 정체성과 대비되는데 한인 정체성은 하나의 민족에, 한국인 정체성은 주권국가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써의 정체성에 주안점을 둔다고 하겠다. 대한민국은 단일민족으로 국가가 형성되어 두 정체성에 공동분모가 컸으나, 이제는 두 정체성 사이에 공통점이 많긴 하지만, 조선족이나, 고려인, 일본에 귀화한 재일동포, 미국, 아르헨티나에서 현지 국적을 취득한 한민족은 한민족의 정체성은 갖되, 그들이 취득한 현지 국가의 국가 정체성을 갖는 것이 자

27) 이러한 예는 이민사회에서 흔히 존재하지만 비밀 문제 때문에 이 논문에서 취급은 하지 못했다.
28) 민중서관 국어사전

연스러운 일이다. 예를 들자면 중국의 조선족의 정체성은 흔히 중국 공민이라는 국민 정체성과 한민족이라는 한민족 정체성이 병존하는 이중 정체성으로 인식된다(윤인진 2004, 80-81).

마찬가지로 미국 속의 한국인(Koreans in America)이나 아르헨티나 속의 한국인(koreans in Argentina)은 이민 1세대 한인으로서의 한국의 정체성을 갖고 있으며, '한국계 미국인(Korean-American)'이나 '한국계 아르헨티나인' 등 한인의 1.5-2세들은 그들 국가의 정체성을 갖는 것이다(윤인진 2004, 253-254).

이런 의미에서 이민세대들의 민족과 국가의 정체성의 혼돈에 의해서 세대 간의 갈등, 다 언어 사용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각각 개인이 숙지한 문화 차이에 의한 갈등과 불협화음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재이주 아르헨티나 동포들은 재이주과정에서 각 가족이 이러한 관점에서 각양각색의 형태를 보인다. 이민 1세들은 재이주를 해서 아르헨티나에 다시 돌아오더라도 2세들을 미국 등지에 두고 온 경우가 많다. 2세들은 다언어(多言語), 다문화(多文化)를 섭렵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보통 두 가지 이상의 영주권을 가진 경우가 허다하다. 즉 다언어를 구사하고 다국적(多國籍)을 갖는 것이다. 특히 아르헨티나는 현지에 살면서 영주권을 포기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극히 어려운 실정이다. 그래서 한국 국적인(國籍人)이면서 미국과 아르헨티나의 영주권을 소지한 동포가 많다. 그래서 가족 간에도 국적, 민족적 다름으로 인한 불편과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들에게 한인 정체성만을 유지토록 강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동포들이 재이주를 거듭하면서 국적과 정체성이 불분명하게된 것이 일반적인 현상인 것이다.

박 마리오의 경우 가족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미국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 부부는 아르헨티나에서 거주하고, 세 자녀는 미국에서 생활한다.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에서 출생하여 아르헨티나와 미국에서 교육받은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4-5개 국어를 구사하며, 여러 개의 국적이나 영주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현지 문화에 적응 하고 있다. 그러나 박 씨는 한국어로 소설을 써 한국문단에 등단한 소설가이다. 박 씨의 이민 30년은 가족이 각각 다른 국적을 가지게 되었고, 국가 정체성이 혼돈스럽게 된 경우이다.

소피아 류의 경우는 재이주 후 다시 아르헨티나로 돌아오거나, 가족이 부모와 자녀들 또는 부부간에 다른 지역에서 일시적이나 장기적으로 거주하는 경우다(이사벨과 그의 남편 오). 김길군, 박 페르난도 등 많은 재아 동포들이 미국 캐나다에 이주하여 영주권을 취득한다. 아르헨티나에 재입국한 이들 대부분은 미국 등 현지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은 체, 한시적으로 아르헨티나에 생활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29].

더욱이 제 2,3국 심지어 제 4국을 거치는 재이주 동포의 경우에는 민족, 국가의 정체성의 혼돈과 다언어와 다문화의 혼돈에 의한 문제가 더욱 가중되는 것이다.

여기서 이들 동포들이 여러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각각의 개체로 남는다면 전 세계의 한인 동포공동체는 와해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여기에 재이주에 따른 동포의 개인의 문제가 동포공동체의 문제로까지 이르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고 다언어 다문화를 숙지한 글로벌 인재는 이 시대에 중요한 개인과 국가 그리고 민족공동체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에는 틀림없다.

---

29)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미국에 입국해야 한다.

V. 재이주에 따른 문제의 해결 방안을 대신하여

아르헨티나를 제 2고향으로 삼고 이민한 재아르헨티나동포들이 현지 정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와 어려움을 면담을 통하여서 뿐만 아니라 현지와 국내에서 출판한 문인들의 작품을 통해서도 살펴보았다.

동포들의 재이주 유형은 미국, 캐나다와 멕시코 등으로 재이주하여 정착하거나, 재이주 국가에서 또 다시 아르헨티나로 귀환하는 경우가 있으며, 아르헨티나에서 한국으로 영주 귀국하는 경우와 제 3국으로 이주한 후에 다시 아르헨티나로 다시 돌아오는 유형들이다.

다양한 동기에 의한 재이주는 새로 이주하는 국가와 지역에서 정착하면서 마주하는 또 다른 언어와 문화 등의 사회적 환경에서 겪게 되는 갈등이 존재한다. 그 외에 가족 간의 거주 지역의 상이함과 세대 간의 사회 적응 차이에 의한 대화의 단절 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 자연스럽게 한국과, 다중 국가의 국적을 갖는 것이 보편화되었고, 재이주자들 일부는 한인 정체성과 다른 정체성을 갖는 등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경우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을 살펴보았다.

반면에 재이주 동포들에게 여러 가지 당면 문제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를 극복하면 다 언어와 문화를 습득한 글로벌 인재가 되는 긍정적적인 면이 있다는 것도 인식하였다.

이들 재이주 한인을 민족 공동체로써 받아들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 민족의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고 한 공동체로 유지하는 방안은 동일언어와 동일 문화를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재이주 아르헨티나 동포를 비롯한 해외의 모든 해외동포에게 한글 교육과 민족 문화를 전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안이다.

최근에 한국국적을 보유한 재외국민에게 참정권[30]을 부여하는 것은 시기적절한 조치이다. 그러나 재외국민은 물론 이주와 재이주를 거듭하는 타 국적 한인동포에게 한인의 정체성을 확립시켜줄 이중 국적 허용이 매우 중요한 조치일 것이다. 민인정체성 위에 국적정체성을 가진 해외 한인동포들은 전 세계에서 한민족 공동체로 거듭 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 논문을 통해서 재이주 한인들이 갖는 특수한 상황을 살피고 그들이 갖는 문제점 등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좁은 국토와 부족한 자원을 가진 한국으로서는 인적 자원이 국가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 더욱이 세계화시대에 다 언어와 다 문화를 섭렵한 한민족을 연으로 한 글로벌 인재는 더욱 필요하다고 본다.

이 논문의 여러 가지 필요와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와 자료 부족, 지역적으로 널리 퍼진 동포들의 사례 취득의 어려움, 한 논문으로서의 시간과 지면의 제약 등의 한계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더 넓고 깊은 연구가 후속 논문에서 이어지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김동원(2006),「중남미 한인동포들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탐색적 연구」, 이베로아메리카, 제 8권 1호, pp.115-132.

김영목 외 (2003),『미주지역 한인이민사』, 한국사론 39, 국사편찬위원회.

김은중(2005),「접선의 세계화와 문화적 리얼리즘」, in『세계화와 라틴아메리카의 이주와 이민』, 오름, pp.283-327.

박찬용・유표근(2008),「재외한인의 민족정체성 비교연구: 미국과 독립국

30) 재외국민의 참정권 실현은 국회를 통과하여 실행되게 되었다. 한국적과 외국국적을 따지지 않고 모든 재외동포에게도 참정권을 부여하자는 의미다.

가 연합을 중심으로」, 2008년 합동국제학술회의 다문화시대 글로벌 디아스포라 논문집, pp.461-487.

맹하린(2006),『세탁부』, 월간문학 출판부.

박채순(2006),「한민족 네트워크와 재아르헨티나 동포」, 재외한인연구, 16호, pp.145-192.

부산외국어대학교 이베로아메리카연구소(2006),「연구용역 과제 최종 결과보고서」.

서성철(2005), "라틴아메리카와 한국이민: 아르헨티나 한인사회와 현지 적응", in『세계화와 라틴아메리카의 이주와 이민』, 오름, pp.205-238.

아르헨티나 문화부(2002),『함박꽃: La peonia y su sombra』, 부에노스아이레스, Disegraf.

윤인진(2004),『코리안 디아스포라: 재외한인의 이주, 적응, 정체성』, 고려대학교출판부.

_____(2006),「사회조사방법을 통한 재외한인연구동포」", 재외한인연구, 16호, pp.5-44.

이강혁(2008),『라틴아메리카역사 다이제스트 100』, 가람기획.

이광규(2008),『재외동포』, 서울대학교출판부.

이교범(1992),『아르헨티나 한인이민 25년사』, 선영사.

임상래(2005), "라틴아메리카의 국경과 이민", in『세계화와 라틴아메리카의 이주와 이민』, 오름, pp.113-169.

임채환·전형권(2006),『재외한인과 글로벌 네트워크』, 한올 아카데미.

장영철(2005), "아르헨동포 사회의 인적구성과 정체성", in『아르헨티나 한국인 이민 40년사』, 대양문화인쇄사, pp.201-212.

재아문인협회(1998,2002,2004),『로스안데스문학』, 통권 3,6-8호 (1998, 아

르헨티나 한인 문인협회 문학 작품집.
재아한인전문인협회(2007),『아름다운 미지의 세계 아르헨티나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재아한인전문인협회.
조돈문・임상래・이내영(2005),『세계화와 라틴아메리카의 이주와 이민』, 오름.
최운(2005),『까라보보의 참나무』, 선우미디어.
Anu, Korb(2008), "Remigration and tellling about it: Stores of Estonians from Russia", Estonia, Folklore 39. pp.39-62.
Christian Dustmann, Oliver Kirchkamp(2001), "The Optimal Migration Duration and Activity Choice after Re-migration", Bonn, Iza.
Courtis, Corina(2000), *Construcciones de alteridad: discursos cotidianos sobre la inmigracio coreana en Buenos Aires*, Buenos Aires: Eudeba.
Gmelch (1980): "Return Migration",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20, Bonn, Iza pp.127-144.
Jachimowicz, Maia(2006), "Argentina: A New Era of Migration and Migration Policy", Washington: Princeton University.
Jerome Adda, Christian Dustmann(2006), "A Dynamic Model of Return Migration", Iza, Summer School Paper.
Mera, Carolina(2005), "A cuarenta anos de la inmigracion coreana en Argentina", Corea... Una mirada desde Argentina: primer congreso nacional de estudios coreanos, Unr, pp.379-404.
Bialogorski, Mirta(2006), "Jovenes coreanos en la Argentina:entre la cultura de origen, la cultura local y el "Mc Mundo", Segundo Congreso Nacional de Estudios Coreanos, La plata, AAEC, pp.131-138.
Roudié, Philippe(2005), "Long-distance emigration from the port of Bordeaux

1865 - 1920".

Naessens, Sergio Francisco(2005), "La remigracion. Analisis de caso: Los coreanos en Tucuman", *Corea... Una mirada desde Argentina*, Buenos Aires: Unr Editora, pp.431-443.

▌논문투고일자: 2009년 10월 23일
▌심사완료일자: 2009년 11월 30일
▌게재확정일자: 2009년 12월 1일